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본어판 japan.gnpnews.org
중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1. 4. 25 ~ 2021. 5. 8 제246호



▲ 불가리아의 다음세대. 제공: WMM

하나님의 선물,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이들의 얼굴에 활짝 핀 함박웃음. 크리스마스일까? 어린이날일까? 커다란 선물박스를 안고 미소를 지어보이는 아이들에게 오늘 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일지도 모르겠다. 무엇이 들어있을까? 두근거리며 선물을 열어 볼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저절로 흐뭇해진다.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면 선물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받는 이의 기쁨을 생각하며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선물이다.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죄로 망가진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지조차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깜짝 선물로

주셨다. 그 분으로 인해 죄의 저주가 끊어져 기뻐할 우리의 함박웃음을 기대하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에베소서 2:8)
[GPNEWS]

탈북민교회, 17년간 68개 설립돼... 통일한국의 모델

10개 교회는 문닫고, 평균 성도수는 34명

한국교회의 ‘북한선교 열매’이자 ‘통일준비의 길잡이’로 성장하고 있는 탈북민교회가 전국에 총 68개 설립됐으나 현재 58개가 활동하고 있다.
탈북민교회인 뉴코리아교회 정형신 담임목사가 10일 총신대학교와 온라인 ‘제1회 탈북민교회 통일준비포럼’에서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문을 닫은 10개 교회를 제외한 58개 탈북민교회 중 52개 교회의 평균 성도수는 34명이었고, 성도가 60명 이상인 교회는 10%였다. 또 52개 교회의 65%는 교회 월수입이 200만 원 이하여서 수입의 절반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했고, 70% 이상은 담임목회자의 사례가 1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탈북민교회는 북한 출신 목회자가 개척(42개)하거나, 남한 출신 목회자가 국내 탈북민 사역을 주요 목표로 개척(25개)한 경우이며, 성도 구성원 대부분이 탈북민이다. 탈북민교

회의 교세나 재정상황은 전반적으로 열악해 한국교회 의 많은 관심과 동역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정 목사는 탈북민교회의 역할에 대해 “설립 초기에는 남한 성도들은 섬기는 자, 탈북민 성도들은 섬김 받는 자로 역할 구분이 명확했으나, 이후 북한 출신 사역자가 증가하고 탈북민 성도들이 교회 안에 건강하게 자리매김 해가면서 남북한 교회 성도 구분이 희미해지고 교회의 짐을 나눠서 지는 형태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정 목사는 “탈북민이라는 특정 대상을 주요 사역목표로 삼았던 초기 탈북민 사역에서 벗어나, 통일선교의 큰 틀에서 남북한 성도들의 통합을 이루어내는 쪽으로 탈북민교회 사역이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탈북민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도움이 필요한 미자립교회 중 하나’가 아닌, ‘한국교회 북한선교의 열매’, 그리고 ‘북한선교의 현장’이고 실제이자 통일준비

의 길잡이’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탈북민교회의 특징은 일반적인 교회 사역과 더불어,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한 NGO 사역, 북한선교 동역을 위한 선교회 사역, 그 밖의 대안학교 혹은 방과 후 학교, 북한 내지사역 등을 병행하고 있다.
탈북민교회는 2004년 북한 출신 목회자에 의해 처음 개척된 이후 올해로 17년째를 맞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탈북민 출신 장인내 전도사는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복음화는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함이 있는 한국에 온 탈북민보다 더 좋은 책임자가 없으며, 이들을 복음의 전사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북민의 40%가 기독교인인 것을 감사하며 탈북민교회와 성도들이 생명의 통로로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하자. 또한 이들이 통일선교를 준비하며 귀한 복음의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기도하자. [GPNEWS]

마음의 눈을 밝히사 (30)

사랑의 이름 ‘호세아’

우상숭배가 하늘을 찌르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부름 받은 선지자 중에 호세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호세아를 불러 “장가가라.”고 하시더니, 행실이 단정하지 못한 여자 고멜을 직접 데려오셨습니다. 호세아는 순종했습니다. 날마다 술한 남자와 놀던 여자에게 거룩한 호세아는 정말 재미없고 짜증이 났습니다. 그러더니 고멜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사라졌다가 몇 달 만에 남의 자식을 임신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용서해주면 다시 나가

서 남의 자식을 또 베서 왔습니다. 그렇게 음란한 자식을 셋이나 낳았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주님이 용서하러니 용서했습니다. 기막힌 배신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멜은 더 의기양양해져서 어느 날 야에 집을 나갔습니다. 가슴 아픈 배신을 잊을 만한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네 아내 고멜을 기억하느냐? 지금 인신매매 시장에서 팔려가고 있다.” 남자들이 마음껏 갖고 놀다가 은 열다섯, 보리 한 호멜 반

쉽게 말해 돼지고기 삼겹살 값에 고대 신전의 창녀촌에 팔아버린 여자를 주님은 또 다시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왜 찾아왔냐고, 갖은 욕설과 악다구니를 하는 여자에게 이렇게 고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은 여전히 내 아내요.” 못 믿으면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알아들을 때까지 여러 번 개유(開諭)해서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심장이 없는 돌덩어리가 아닌데, 호세아의 마음에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기막힌 그 고통



의 밤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호세아, 너, 마음 아프지? 오늘은 내 이야기 좀 하자. 내 백성을 신부 삼아 사랑하고 내 품에 안으려던 것이 몇 번이나. 그러나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들은 음란한 네 아내 고멜처럼 수없이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긍휼이 내 안에서 불붙어 견딜 수가 없구나. 네 아내를

되찾아오라고 한 것처럼, 나는 반드시 그들을 되찾을 것이다. 나는 내 백성의 더러운 과거를 기억도 나지 않게 다 지워주고, 모든 값을 다 치러주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장가들어 그들의 신랑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G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복음의 소리 316 전화

복음이 뭔지 궁금하신가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하신분들은 연락주세요.
전화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운영시간: 10-22시
 상담시간: 40분

장난전화는 삼가주세요
상담전화 ☎ 1670-3160

영국 크리스천컨선, “한국은 반드시 동성애 프로그램 막아야”

평등법 통과된 영국, “동성애 반대 어린이를 교실에서 4시간 감금”



▲ 영국 웨스트민스터대학교에 걸린 무지개 깃발. 출처: westminster.ac.uk 캡처

영국 기독교 법률센터 크리스천컨선은 평등법이 통과된 영국에서 교내 동성애자 행사를 반대한다고 교사가 5세 아동에게 4시간 감금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한국은 동성애 옹호 프로그램이 학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단체 대표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는 최근 국민일보의 기고문에서 영국 등 유럽의 학교는 2010년 평등법이 입법되자 교육부는 성적지향, 성전환 등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의 옹호와 조장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새로운 교육 시행령을 제정해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성소월주의자인 LGBTQ(레즈비언·게이·양성애

자·트랜스젠더)를 가르칠 것을 의무화했고, 이는 기독교 학교도 마찬가지였다. 수업에 불참할 권리도 없으며 지금은 초등학교도 거센 압력을 받고 있다.

안드레아는 “많은 영국인은 부모가 자녀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을 것으로 자국의 공교육을 절대적으로 신뢰해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한국인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안전하게 지키라고 말하고 싶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확인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프로그램이 학교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라. 이를 위해서 정치인, 교육자, 목회자, 법조인을 관련 운동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영국은 정부가 앞장서서 LGBT 교육을 옹호하고 권장하고 있다. 보수당마저 동성애 옹호론에 지배되고 있고, 이를 완전히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영국 기독교 문화유산의 상징인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교육부 건물엔 거대한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다. 주 출입구에 들어서면 유일하게 보이는 상징물인 이 깃발은 건물 두 개 층을 장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안드레아는 “한국의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정부가 이런 일을 받

아들이지 못하도록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 초기부터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영국 교육부는 자신들의 이메일 서명란에 새로운 표식을 걸었다. 표식은 무지개 색깔로 ‘나는 LGBT+ 승리자입니다.’란 구호가 적혀 있다. 또 그 이메일 서명엔 ‘사람의 외모나 이름만으론 그가 어떤 성별을 갖기로 했는지 알 수 없다.’고 쓰여 있다. 이것이 아동과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영국 교육부의 모습이다.

안드레아는 또 기독교인인 이지몬테규와 그의 남편 세인과 이제 다섯 살인 아들 이사야의 가정에서 겪은 이야기를 통해 영국 학교 교육의 실상을 소개했다. 이지는 학교에서 동성애 축제를 통보받고 항의하기 위해 학교를 찾았을 때, 교장과 함께 만난 교사(교장의 딸)는 ‘왜 동성애자, 성전환자를 혐오해? 그냥 조용히 있어.’라고 쓰여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교장은 이지의 이의제기에 “학교는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교내 동성애자 축제를 강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게다가 그 답변서를 받은 날 이사야의 담당 교사는 이제 겨우 다섯 살인 이사야를 4시간 동안 집에 보내지 않고 학교에 혼자 남아 감금하는 체벌을 줬다. [GPNEWS]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수단 서다르푸르, 부족 간 충돌... 132명 이상 사망

아프리카 수단 서다르푸르주 주도 알주나이아에서 지난 3일부터 리제가트 부족과 마살리트 부족 간 무장대립과 약탈이 이어지면서, 적어도 132명이 사망하고 최소한 208명이 다쳤다고 미국 abc 뉴스가 보도했다. 지난 1월에도 서다르푸르와 남다르푸르에서는 부족폭력으로 470여 명이 목숨을 잃고 12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발생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 복음이 모든 인류가 서로 원수 된 것을 이미 소멸하신 것을 선포합니다. 이 복음으로 폭력과 탈취, 질병과 살상이 자행되고 있는 수단의 부족 간 분쟁을 끝내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을 이루는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인니령 파푸아, 무장단체가 교사 2명 살인 후 시신 반환비 요구

인도네시아령 파푸아에서 무장단체가 교사 두 명을 잇따라 총으로 쏘아 죽이고, 시신 반환 대가로 돈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고 12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무장괴한들은 파푸아 뽀팍(Puncak)군 비오가 마을에서 학교 3곳을 불태우고, 마을 사람들을 갈취했다. 이들은 돈을 받은 뒤 10일 시신 두 구를 넘겨줬다.

하나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마음에 거리낌 없이 약탈과 방화, 살인, 협박을 하는 우리의 비틀어진 존재를 용서해주십시오. 비오가 마을의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무장단체가 자신이 한 일을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모잠비크, 팔마서 외국인으로 보이는 12명 참수

최근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IS)와 연계된 무장대원들의 공격을 받은 모잠비크 북부 팔마 타운에서 외국인으로 보이는 12명이 참수됐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 보도했다. 현지 경찰 책임자인 페드로 다 실바는 참수된 12명의 국적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백인들이므로 봐 외국인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주님, 모잠비크에 자신을 내어주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해주십시오.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본보기로 사람을 죽이는 ISIS의 잔혹함을 엄히 꾸짖어 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GPNEWS]

라이프웨이, 목회자 97% “예수는 문자 그대로 재림한다”

기독교 종말론 또는 종말 연구에 초점을 둔 새로운 설문 조사에 따르면, 목사 10명 중 9명은 예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는 사건들을 최근 보고 있다고 답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복음주의 교회와 전통 흑인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97%가 예수 그리스도가 문자 그대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 물었고, 예수님께서 재림 전의 “출산의 고통”(마 24:8)에 대한 응답으로 설명하신 바 있다.

달라스신학교의 대럴 복 교수(신약학)는 “마태복음 24~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의 재림에 대한 몇 가지 잠재적 징후에 대한 이야기가 열거되어

있으며, 그중 몇은 전염병 같은 지구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에서 재앙이나 역병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셨다.”고 말했다.

‘선택된 사람 선교회(Chosen People Ministries)’ 미치 글래스 회장은 “초 전통 유대인들 역시 이러한 유형의 징후가 메시아 재림의 지표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서나 복음주의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유행은 복음주의자들과 메시아 재림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징조로 보여지고 있다.”고 했다.

라이프웨이가 2020년 초, 목회자들에게 ‘특정 시사 문제를 예수님의 경고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목회자 4명 중 최소 3명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가르침의 부상(83%), 많은 신자들의 사랑이 식어 가고 있

음(81%), 전통적 도덕이 덜 받아들여짐(79%), 지진 및 기타 자연 재해(76%),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75%) 등이 예수님의 경고에 포함된다는 데 동의했다.

대다수는 기근(70%)과 전 세계 유대인에 대한 반유대주의(63%)를 예수의 재림의 징조로 봤다. 목회자 10명 중 1명(11%)은 예수께서 언급하신 출산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목회자의 절반 이상(56%)은 예수님이 자기의 생애 중에 재림하실 것으로 기대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길 기대한다고 말하지만, 24%의 목회자들은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했으며, 25%는 강력하게 동의한다고 답했다. 31%는 다소 동의, 20%는 동의하지 않으며, 6%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크리스찬타임스=복음기도신문> [G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1년 4월 26일 ~ 5월 8일

4월 26일 ~ 5월 1일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4.26(10시)~27(17시) ▶강원 고성 / 야야진교회(홍**)010-3191-8622, 4.26~30(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4.26~30(14~17시)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4.26~5.1(10~12시)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4.27(11~13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4.27,29~5.1(19~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4.30(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4.30(13~17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4.30(10시)~5.1(10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김**)010-4013-5346

5월 3일 ~ 5월 8일 ▶서울 광진 / 빛과소금교회(권**)010-7754-1726,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5.3(0~24시) ▶울산 중구 / 태화교회(박**)010-9326-7767, 5.3~7(0~24시) ▶광주 북구 / 십자가사랑교회(정**)010-6280-4419, 5.3~7(10~20시) ▶전북 전주 / 주를따르는교회(김**)010-4743-9397, 5.3~7(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5.4,6~8(19~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5.7(10시)~8(10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김**)010-4013-5346, 5.7(12시)~8(12시) ▶대구 중구 / 서현교회(권**)010-9275-7843, 그 외 4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10-8267-4365

기획 | 무슬림과 함께 사는 이야기 (4)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는 여성들 - 무슬림 여인들 (2)

“한번은 알라의 사도(무함마드)가... 여자들 곁을 지나며 이렇게 말했다. ‘여자들이여! 자선을 베풀어라. 지옥 불 속에 사는 대다수는 너희들(여자들)인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예수와 무함마드’, 마크 가브리엘, 지식과사랑사 2009, P223)

무함마드는 이렇게 지옥에는 여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여자가 더 죄를 많이 지어서라기보다, 남자에 비해 열등한 존재여서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래서 여자들이 천국에 가고 싶으면 자선을 더 많이 베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악한 전조가 여자라고도 했고, 여자는 지력이 부족해서 남자의 증언의 절반과 같다고 코란 2장 282절에 말하고 있다. 즉, 어떤 사건에 증인을 세울 때, 남자 1명의 증인과 여자 2명의 증인이 증언의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말한 것이다.

무함마드가 말했듯이 여자들은 이 땅에서 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이슬람의 천국은 남성들을 위해 준비된 곳이다. 남자가 이 땅에서 아내가 한 명이 있으면, 천국에서는 그 아내가 거느리는 후레이야(전쟁포로로 성노예와 같은 여자)가 70명이 있다. 또 그 후레이야의 몸종이 70명이 있는데, 그 여자들이 다 그 남편에게 속한 여자가 된다고 한다. 이 땅에서 아내가 4명이었으면 그 숫자는



▲ 무슬림 여성들. 출처: unsplash

엄청나게 많게 된다.

그러면 이 땅에서 무슬림으로 살다가 죽은 여성이 천국에 간다면 그들을 위한 천국은 어떤 곳일까? 이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찾기 어렵다. 그들의 천국론에 따르면, 여자는 이 땅에서 좋았는지 싫었는지 그 남편과 또 함께 영원히 살게 되고, 결혼을 안 했다면 70명의 후레이야 중의 한 명이 될 것이다.(유튜브 이슬람 상자 47강 중에서, 하미드 압둘 사마드 박사) 사실, 나는 이 강의를 듣다가 속이 매스꺼웠다. 이 설교를 하는 이맘도 남자이고 듣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남자들인데 그들의 웃고 있는 표정이 역겨웠기 때문이다. 이들은 어떻게 천국으로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X국 사람들은 거의 모두 다 종교심이 있어, 처음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종교가 무엇인지 항상 물어본다. 누구나 그렇게 종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나는 친

구들과도 자연스럽게 천국, 지옥에 대해 이야기를 하곤 한다. 그 대상이 여성이라면, 이슬람에서 천국이 어떠한지 알기에 ‘여성에게 이슬람의 천국이 얼마나 불공정하냐?’고 질문을 던져본다. 그들은 정확한 답을 못하면서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알라의 자비라고 답한다. 꾸란에서 알라가 그렇게 말하고, 무함마드가 말한 것에 대해 그냥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그 뜻이 ‘복종’이며, 무슬림은 ‘알라에게 복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알라와 무함마드의 말에 감히 의문도, 질문도 할 수 없다.

한번은 택시를 타고 가는데 꾸란이 흘러나왔다. 이곳에서는 택시에서나 버스에서 꾸란이 나오는 것은 일상이다. 외국인이 택시를 타면 어떤 운전기사는 소리를 더 크게 높이기도 하고, 간혹 어떤 운전기사는 음악 라디오 채널로 돌려주기도 한다. 그날은 꾸란이 나오는 스피커 소리가 너무 커서 약한 귀

가 아프고 힘들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소리가 너무 크다. 좀 줄여달라.”고 했다. 보통 이렇게 말하면 싫더라도 별말 없이 줄여 준다. 그런데 이 운전기사는 나에게 큰소리로 막 화를 내는 것이었다. “이것은 알라의 말씀이다. 시끄럽다고? 소리가 크다고? 어떻게 알라의 말씀을 시끄럽다고 할 수 있냐?” 소리를 지르면서 스피커 볼륨을 더 크게 올렸다. 이렇게 너무나 당당하게 손님에게 화를 내는 운전기사를 보고, 그때 비로소 제대로 이해가 되었다. 모스크에서 확성기 소리가 아무리 크게 자기 집을 향해 울려 퍼져도 누구도 아무 말도 못하고, 버스 안에서나 마트에서도 크게 꾸란을 틀어놓아도 아무도 항의할 수 없이, 알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저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떤가 돌아보게 됐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양하다가도 내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도 없고 사건이 일어나고 상황이 안 바뀌면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질문하고, ‘이럴 수 있느냐?’며 하나님께 화를 내고, 따지고, 빠지곤 한다. 무슬림들은 가짜 하나님을 대상으로도 저렇게 복종하는데, 그들의 그런 절대적 믿음과 복종을 보면서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배울 때가 있다.

죄 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나의 죄를 그 육신

에 정하시고(롬 8:3)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으로 오셔서 마지막 호흡을 다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 나도 죽는 날까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더 알아가며, 더 사랑하며, 기쁘게 순복하기를 원한다.

기도 | 무슬림 여인들이 결코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도 생명 다해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 무슬림 여인들을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서 무슬림 여성들은 수많은 차별을 받으며, 수모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들이 믿는 천국의 실상은 말이 안 되는 사실임에도 그것을 의심하지도 않는 이들에게 생각하게 하시고, ‘이것이 진짜 천국일까?’ 질문을 갖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 진짜 천국을 갈망하게 되길 원합니다. 남녀가 차별이 없고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천국, 이 무슬림 여인들을 위해서도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천국을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무조건 복종하게 하는 가짜 신의 속임에서 벗어나, 참 하나님께 순복하는 행복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들을 통해서도 예배와 영광을 받드시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GPNEWS]

김민음(북아프리카 사역자)

기획

손현보 목사 4.7선거 관련 발언으로 선관위 조사

일제 잔재 ‘성직자 선거관련 발언 금지’ 악법 폐지돼야

성직자의 선거 관련 발언을 금지한 악법이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손현보 목사가 지난 4.7. 보궐선거 관련 발언으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계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등장했다.

손 목사는 지난 주일(4월 11일) 설교 시간에 “이번에 부산 시장으로 출마한 김영춘 후보자(더불어민주당)가 작년에 국회의원을 할 때 했던 발언 영상을 소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몇 마디 했다고 해서 곧바로 선관위에 고발이 되어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손 목사는 “작년에 김영춘 (당시) 의원은 국회 문화관광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질문하기를 ‘교회에서 99%가 방역을 잘 하더라

도 1% 확진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1%조차도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예배를 전면적으로 중단시키고, 꼭 필요한 곳에는 허가를 하는 허가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김 전 의원)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대통령에게도 요청을 했고, 또 이 사실을 문광부 장관에게도 요청하면서,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해 교회를 전면적으로 문을 다 닫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데만 문을 열도록 해야 한다. 이게 현행법으로 안 되면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발휘해서라도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당시 발언을 소개했다.

손 목사는 “우리나라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회의원이 헌법에 보장돼 있는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무시하고 모든 교회의 문을 다

닫고 예배 드리는 것을 허가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것은 전체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이것은 바로 교회를 말살하고자 하는 정책이 아니면 이런 사상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런 선거를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선거를 해야 하는지, 이런 데 대한 생각을 가지고 모든 교인들이 투표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고발을 당했다.”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직자 선거관련 발언 금지 조항은 일제 시대의 유산이다. 일제는 1925년 치안법 관련 조항으로 성직자들의 정치적 발언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한반도에 민주화 연합군사령부가 ‘정치적, 공민적, 종교적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제거하기 위한 사령부 각서’로 폐지를 명령해 성직자 관련 발언 금지 조항은 사라졌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성직자의 발언을 금지하기 위한 선거법을 개정,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교계 전문가는 “김영춘 같이 영향력이 큰 사람이 정치 선동하는 것은 괜찮은데 목사님들이 본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언하지 못하는 선거법은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전문가는 또 “종교인들은 정치인들이 만드는 각종 동성애·이슬람·사회주의적 악법과 조례·정책에 대해 종교의 자유 등의 이유로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각 지역구 기독교연합회가 국회의원들에게 요구

해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한국은 해방 이후, 1948년 5월 10일 보통, 비밀, 직접, 평등 등 선거의 4원칙을 채택한 총선거를 시작으로 민주주의 연습을 시작했다. 그 이후 여전히 빼먹거리고 시련을 겪으면서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점진적으로 폭을 넓혀 왔다. 또 선진 민주주의 국가가는 투표를 위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쪽으로 법과 판례가 바뀌어 왔다. 이와 같은 때, 성직자들이 경건한 삶과 원칙에 대해 예배 시간에 밝힌 설교 내용으로 선거 개입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자칫 종교의 자유 침해 소지도 있다. 성직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경이 제시하는 각종 삶의 기준과 원칙들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자. [GPNEWS]

기획 | 창조 이야기 (53)

지질시대표는 지구가 겪었던 실제 역사와 무관하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 지질학자들이 사용하는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측정의 결과가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결과들이 각 지층의 나이를 수백만~수십억 년을 나타내므로, 지구의 나이가 오래됐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런 긴 연대들이 논문에 실리기까지 수많은 전제와 편견에 의해 선택되는 과정을 겪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근거 없는 수십억 년 된 지질시대표가 기준

진화론자들은 수십억 년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등으로 나누는 지질시대표가 과거의 역사라고 신뢰를 바탕으로 연구하고 분석한다. 이런 지질시대 구분은 1872년 찰스 라이엘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실제로 지구상에 이런 지질시대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지구상에 발견된 화석들을 진화론적으로 책에다 모아 놓은 일종의 진화표일 뿐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측정은 1900년 중엽

에 등장했으며, 화석의 나이를 측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서를 정했다. 그럼에도 지질학자들은 지질시대표를 보며 지구가 수십억 년 되었다고 의심 없이 여긴다. 이것은 지질학계 안에서 돌이키기 어려운 거대한 전제가 되어버렸다.

가정에 따라 다른 측정방법, 순환 논리의 허점

방사성 동위원소들은 각각 반감기(半減期)가 있다. 반감기란 기존의 원소가 다른 원소로 변하여 반으로 줄어드는 속도다. 이 반감기는 원소에 따라 1초도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것에서부터 수백억 년 되는 아주 긴 것까지 범위가 다양하다.

예를 들면, C14-N14의 반감기는 5730년이다. 즉 어떤 동식물이 죽은 지 5730년이 지나면 그 유기물에 C14의 양이 반만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다. 즉 그 유기물 속에 C14의 양이 많으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며, 적으면 그만큼 오래된 것으로 판단한다. 화성암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Rb-Sr(루비듐-스트론튬)의 반감기는 49억 년, U-Pb(우라늄-납)은 45억 년, K-Ar(칼륨-알곤)은 12.5억 년 등과 같이 아주 길다. 이는 이들 원소의 붕괴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반감기가 짧은 C14 원소는 5만 년보다 짧은 연대를 가졌을 것으로 여기는 것들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만약 짧은 반감기의 원소를 가지고 오래됐다고 여기는 것들을 측정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또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 실제 나이와 관계없이 짧은 반감기를 가진 원소들로 측정하면 젊은 나이를, 긴 반감기를 가진 원소들로 측정하면 오랜 나이를 보여주었다. 이는 기존의 오랜 연대가 틀렸거나, 아니면 방사성 연대측정 원리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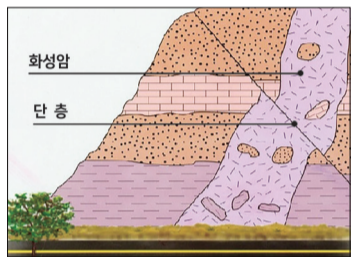
연구자가 측정결과 마음대로 취사선택

방사성 연대측정법은 시작부터

존재하지 않은 지질시대라는 전제 속에서 출발했다. 또 실제 측정방법 자체에도 심각한 가정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측정 결과들이 기대하는 수치와 일치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런 일치하지 않은 결과들은 대부분 논문에 수록되지 않은 채 실험실에서 사라져 버린다. 그리고 지질시대표에 적혀 있는 수치와 근접한 결과만이 발표되며, 대부분은 지질시대표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시도한다. 이것 역시 지질시대표의 연대가 옳다는 전제하에 선택하는 전형적인 순환 논리다. 버려지는 데이터들은 연대측정 기술이 덜 발달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지질시대표가 지구가 겪었던 실제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겪게 되는 현실이다.

직접 측정하지 않는 화석과 퇴적 지층

지질학자들은 아래 그림을 보고



▲ 수평으로 쌓여 있는 퇴적 지층에 수직으로 화성암이 뚫고 있다. 사선으로 된 선은 단층이다. 제공: 창조과학선교회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지층의 퇴적 작용 이후 기존 지층을 뚫는 화성 작용이 있었다. 그 이후에 기존 암석들 모두를 상대적으로 이동시킨 단층 작용이 일어났다.' 이런 상대적인 지질 순서는 당연히 옳은 해석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연대측정 대상은 퇴적 지층을 뚫고 있는 화성암뿐이다! 나머지 퇴적 작용이나 단층 작용이 일어났던 시대는 측정 불가능하다. 퇴적 작용의 기간, 그다음 얼마 후에 화성 작용이 있었는지, 또 얼마 후에 단층 작용이 일어났는지 그 절대적인 연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단지 진화론적으로 오랜 기간이 걸렸을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질시대표의 긴 나이를 보며 지구는 수십억 년 됐다고 받아들여게 됐다. 이는 성경을 바라보는 마음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고, 그 문 제점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연대를 받아들이는 것은 과학적이 아니라고 단정해버리게 됐다. 또한 교회 안에서조차 진화론자들과 동일하게 지질시대표의 연대를 사실로 전제하며 유신론적 진화론, 점진적 창조론, 다중격변론과 같은 타협이론이 만들어졌다. [GPNEWS]

이재만 선교사 (창조과학선교회 회장)



선교 통신

카렌실향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2만여 명 고향 떠나



▲ 카렌실향민들. 제공: 오영철 선교사

군부 쿠데타로 혼란 가운데 있는 미얀마에서 미얀마군의 공격으로 살던 곳을 떠난 카렌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ople, IDP)이 2만여 명 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얀마군의 공세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편이며 국경에 있는 카렌족들은 불안한 소강상태라고 할 수 있다. 태국정부의 허락으로 구호물자가 반입되었고 태국에 있는 카렌족 단체인 '태국카렌'을 중심으로 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미얀마 내부 일부지역에서 전투는 계속되고 있고, 그로 인한 실향민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상황

이 호전되기 보다는 예단할 수 없는 미얀마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미얀마군의 공격으로 카렌군(KNLA) 5여단 지역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약 7000여 명은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인 살라원경을 따라 4곳의 지역에 집중해 있다. 가장 피해가 컸던 데쁘노(Depuno)지역의 3000명에 달하는 카렌들은 하루 이틀을 걸어서 국경지역인 매느타에 도착했다. 현재 미얀마군의 공격의 두려움으로 장소를 오가면 근근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카렌민족연합, 미얀마군이 공격하면 대항할 것

지난 1주일여 동안 미얀마 공군 전투기 공격은 없었다. 이것이 휴전이나 종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카렌군 5여단과 접한 파뽀(Papun) 지역으로 4개 이상의 보병 대대가 증강됐고, 드론을 통한 정찰과 정보 수집은 계속되고 있다. 공격용 헬리콥터를 통한 공격도 준비한다. 1, 3, 5여단 지역에서 산발적인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큰 전투가 예상된다. 카렌

민족연합(Karen National Union, KNU)은 미얀마군의 공격에 대해 방어전을 할 것이며 미얀마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와 협력해 미얀마군과 맞설 것을 천명했다.

태국정부, 한국교회 등 카렌실향민 지원

미얀마군의 공격으로 발생한 카렌실향민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 태국카렌침례총회 산하 교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도우며 참여하고 있다. 태국카렌그룹(Thai Karen Group)에서 태국정부가 카렌실향민들을 받을 것을 요청했고 그들 방식으로 돕고 있다. 소식을 들은 한국교회와 기관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외국에 있는 기관들과 흠어진 카렌난민들도 도우며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카렌실향민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서 장기적으로 충분한 지원이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지난 4월 7일 태국정부는 카렌실향민들의 구호물자를 보낼 수 있도록 허락했고 그동안 모아진 구호품을 보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매우 특별한 것으로 긍정적인 신호다.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 담요와 텐트, 옷과 약품 등 가장 급한 물품들이 전달됐다. 상황이 안정이 안 되면 현지에서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스스로 공급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외부 지원은 계속 요청되고 있다.

이푸타 캠프의 난민은 태국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미얀마의 카렌 지역으로 돌려보내지면서 관심이 많아졌다. 이푸타에는 2045명이 있고 멀리 않은 오와끄로에 442명이 있다. 이들은 태국에서 카렌지역으로 돌려보내진 후 미얀마군의 공격으로 밀림에서 지냈다. 그런데 지난 주에 비가 3일 동안 내리면서 밀림에 머무는 것이 어려워 일부가 이푸타 캠프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현재는 대부분 들어와서 지내고 있지만 약 30% 정도는 두려워 밤에는 밀림으로 가서 자고 있다.

이푸타 캠프는 국경에 있는 약 7000여 명에 이르는 카렌실향민들의 식량보급과 배급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곳도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데 이런 배급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은 국경의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GPNEWS]

인도차이나반도=오영철 선교사

복음의 능력

십자가에 못 박힌 삶

십자가에 못 박힌 삶과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 연구하고 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이런 삶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이런 삶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른 것들을 온전히 포기해야 한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에 등을 돌리고 곧장 그분의 품으로 달려갈 만큼 이런 삶을 원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최고 통치자요, 주님이 되시도록 해야 한다. 십자가 앞에 완전히 무릎 꿇어야 한다. 나의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의(義)에 대해서도 죽어야 한다. 내가 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이 삶의 매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이 포기했던 것들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잃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고 기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GPNEWS]



성령님 (A.W. 토저)에서 발췌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양한 복음의 영양분을 공급하고 싶어요”

복음 담은 콘텐츠로 진리를 전하는 박태양 목사(TGC코리아 대표)



© 복음기도신문

박태양牧사는 TGC코리아의 대표를 맡아 섬기고 있다. TGC(The Gospel Coalition)는 개혁주의적인 신학과 복음중심적인 신앙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2005년 미국에서 창립된 기독교 연합 기구다. TGC 웹사이트에 올려진 30만 개가 넘는 강의, 설교, 대담, 에세이, 평론 등을 한국어로 번역해 한국교회를 섬길 뿐 아니라, CTC(City To City) 교회개척 사역을 통해 복음 전파 사명에 순종의 걸음을 걷고 있는 박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신앙의 불모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10살 때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병 때문이었죠. 그때 먹으면 모든 것을 토했어요. 병원에서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결혼 전에 교회를 다니셨던 터라, 뒤늦게 교회를 찾아갔어요. 전도사님이 매일 우리 집에 찾아와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건강도 회복됐고요. 감사하게도 제가 30년 후에 그 교회 담임목사로 가게 됐습니다.”
- 그 30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겠지요?

“제가 10살 때 병 고침을 받았지만, 15살 때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대학다닐 때 주변에서 제가 목회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싫었어요.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저 돈 잘 버는 장로로 살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어서 100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결국 100일 후에 비전이 목회로 바뀌었어요. 그때가 대학 2학년 때였어요. 학교를 졸업할 때 즈음 아버지가 목회를 하더라도 몇 년 후에 하라고 권하셨어요. 제가 너무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라서 세상을 모른다면서요. 그때는 제가 가끔 예배시간에 조는 성도들을 비판을 했는데, 저에게 교만하다면서, 목회자가 되면 정죄하는 목사가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목회하면 안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 어떤 직장이었나요?
“광고회사였는데, 직장생활이 너

무 힘들어서 제가 예배시간에 졸았어요. 내가 비판하던 꼴을 제가 고스란히 했어요. 게다가 회사에서조차 부정직한 일들 앞에서조차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제 모습을 보면서 코가 납작해졌어요. 내가 자격도 없는데 뭘 몰랐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 같은 사람은 목회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에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매일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아내가 제가 언젠가는 목회를 할 거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자격이 없다고 했더니, ‘당신이 자격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맞는 것 같다.’고 말했죠. 양가 부모님들도 할 거면 빨리하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교를 준비했어요.”

“자격 없다고 생각하니 이제 목회해도 되겠어요”

- 아버지의 말씀대로 목회자로 준비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이후의 시간은 어떠셨어요?
“신학교에 합격하고 나서 한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세계선교 담당 전도사를해보지 않겠냐고요. 제가 광고회사

요. 선교지에 나가지 않고 교회에서 계속 섬겨줄 사람이 필요하면서요.”

-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빈틈이 없어 보이네요.

“그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방학 때마다 아프리카, 방글라데시 등 현지에 가서 몇 개월씩 지내면서 선교훈련을 받았어요. 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니 마음이 바뀌었어요. 선교사로 나가고 싶더군요. 그런 마음을 나눴더니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해주셨어요. 신대원을 졸업하고 방글라데시로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오게 됐어요. 교회의 선교정책이 바뀌면서 모든 선교사들의 파송을 취소하면서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됐던 것이죠. 이후에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선교사로 나가던지, 아니면 목회를 하던지 명확하게 말씀해달라고요. 그때 마침 제가 병 고침을 받았던 교회 담임목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거의 30년 만이었어요. 전화를 거신 분이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준 전도사님이었어요. 제 이름이 워낙 특이해서 긴가민가하고 전화를 하셨더군요.”

- 제안을 받고 어떠셨어요?



▲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박태양 목사. 제공: 박태양 목사

에 다닐 때 해외PR 담당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그때 부유한 나라도 영적으로 피폐하고, 가난한 나라는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에 앞장섰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다녔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은 선배가 교회 목사님에게 제 이야기를 한 것이었어요. 목사님이 선교사로 해외에 나갈 계획이 있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때는 선교지에서 선교할 생각은 없다고 했더니 ‘그럼 됐다.’고 말씀하시면서 선교 담당 전도사로 섬겨달라고 하셨어

“처음엔 자격이 없어서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목사님이 평생 일군 교회를 망칠 수 없다고 했죠. 그래도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와서 메시지 한 번 전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보도 아닌 것 같아서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러나 거절하는 것 자체가 교만일 수 있다는 어머니의 권면으로 인사드리러 갔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30분 설교 시간 중에 15분은 울다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저를 그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신대원 졸업

식을 마치고 7월에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됐어요. 그렇게 11년을 행복하게 섬겼어요.”

- 놀라운 일이네요. 그 이후의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제가 목회 10년차에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었는데 싫다고 거부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교회를 사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 일에는 사연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한 목회자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며 10년만 하고 목회를 내려놔라는 이야기를 책에서 읽고 저도 담임을 하면 10년만 하고 내려놓겠다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담임으로 목회한지 10년 됐을 때 갑자기 그 기도내용이 생각났어요. ‘하나님, 신학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기도였는데 한번 말았으면 끝까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기도하며 애써 외면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했던 것은 그때 상황이 편했기 때문이었어요. 당시는 방송에도 출연하고, 큐티책 집필도 하면서 활동도 왕성하고, 당회는 항상 웃음꽃이 피었어요. 굳이 내려놓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때 아는 선배 목사님들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면서 계속 목회하라고 했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가 미국 애틀랜타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 어떤 사건이죠?

“그곳 일정을 마칠 때 즈음 머리가 너무 아파서 쓰러졌어요. 다음날 아침 비행기로 한국에 가야 했기 때문에 간신히 일어나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공항 화장실에서 또 쓰러졌어요. 간신히 부축을 받고 어렵게 한국에 도착해 병원에 갔는데 뇌종양이라고 했어요. 그때 제 마음이 무너지더군요. 병원에는 내가 정리할 게 있으니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하고서는 돌아와서 기도를 했어요. 본의 아니게 급식기도가 됐어요. 밥맛이 없었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었는데도 사람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킨 거 잘못했습니다. 사임하겠습니다. 그러니 살려주세요.’ 회개를 했어요.”

- 많이 힘들었겠군요. 뇌종양은 회복이 됐나요?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갔어요. 검사자료를 판독하는데 일주일이나 걸렸으면서 결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군요. 자기들

도 책에서밖에 못 봤던 특이한 케이스라면서 아프면 진통제 먹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때 기쁘면서 동시에 힘들었어요. 이번엔 진짜 교회를 그만 뒤야 되니까요. 이후 안식년을 6~7개월 받아서 여행도 가고 기도원에서 기도도 했어요. 3개월 기도하니 마음에서 내려놓아 지터군요. 그렇게 교회에 인사를 드리고 사임하게 됐어요. 그때가 7월 첫 주였는데, 제가 그 교회에 처음 갔던 게 11년 전 7월 첫째주였죠. 딱 10년 동안 그 교회를 섬기게 하셨어요.”

- 이야기를 들을수록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너무 완벽하게 느껴지네요. 사임한 이후엔 어떻게 됐나요?

“사표를 쓰고 나서 한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제 할 일 없지?’ 다음 주에 모임 있는데 나오라고요. 그게 TGC 준비 첫 모임이었어요. TGC는 The Gospel Coalition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복음연합’이에요. 졸지에 제가 준비위원이 되면서 그해 연말에는 대표가 됐어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당시 모임 참석자 중 아무런 직책을 맡지 않은 사람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심부름꾼으로 뽑혀서 준비위원을 하던 중에 CTC 사역이 한국에서 시작했는데, 거기 사무총장도 맡아서 하게 됐어요.”

서원대로 10년간의 담임목사직 사임하다

- CTC가 어떤 것이죠?

“CTC는 팀 켈러 목사가 2001년에 시작했어요. 도시 목회, 그중에서도 개척하는 사역이에요. 교회개척은 기존교회에서 분가해 나오는 ‘분립 개척’과 문자 그대로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맨땅 개척’으로 나뉘는데 전 세계에서 400개 가까운 개척교회가 CTC 이름으로 만들어졌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지는 2년이 됐어요. CTC 교회의 95%는 5년 후에 자립하고 있어요. 개척하는 사람이 제대로 돼 있어야 이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개척할 사람들을 교육하는 기관이 있어요. 4학기를 이수해야 개척할 자격이 생겨요. 훈련 끝에 최종 확인하는 과정이 6개월이 걸리는 만큼 까다롭죠. 결국 사람이 준비 돼 있어야 하니까요.”

- 그렇군요. 그럼 TGC는 어떤 단
(6면에 계속)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강권적인 은혜의 복음 (6)

모두 감동하는 잔치에 즐겁지 않은 한 사람, 탕자의 형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눅 15:22-24)

감격에 찬 아버지는 놀란 종들에게 말한다. ‘얘들아! 가장 좋은 옷 있지. 그 신발이 있잖아! 얼른 갖다 입고 신겨라. 그리고 반지를 끼워라. 동네 사람을 다 불러라! 가장 큰 기쁨의 잔치를 벌여라!’ 이 잔치가 가장 화려하고 신나고 감격스런 잔치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아버지가 말한다.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다. 이제는 끝났구나 했는데 돌아온 것이다. 그러니까 가

장 살진 송아지를 잡고 최고의 기쁨의 잔치를 벌여라!’ 그랬더니 그들이 다 즐거워했다. 인간으로 받을 수 있는 감동 중에 이런 감동이 어디 있겠는가. 가장 완벽한 배신을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품어내시는 아버지의 사랑말이다.

예수님은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각박하고 소망 없는 인류 역사에 빛을 비춰주는 기쁜 소식, 복음이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쓸어서 영원한 지옥 불에 던져 넣어야 할 죄인을 영광의 아들로 다시 삼으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인을 아들로 삼고 그 손가락에 인장 반지를 끼어준다는 말에는 무슨 대가가 지불 되는지



일러스트=이예민

알지 않는가. 하나님의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이 죄인인 우리 대신 갈보리 언덕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야 이 하늘 잔치가 가능한 것이다. 돌아온 아들을 위한 잔치, 복음. 종들과 동네사람들 할 것 없이

감격할만한 십자가 복음이야, 누구도 감동할만한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이다. 그런데 여기에 즐겁지 않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 잔치를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분노하는 사람,

바로 성실하기 이를 데 없고 스스로 자부하는 탕자의 형이다.


만아들이 밭에 있다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어머마 한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무슨 잔치냐고 한 종에게 묻는다. 좋은 기쁨하면서 당신의 동생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고 기쁨의 잔치를 열었다고 했다. 형은 분노하며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다.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을 설득한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분노에 차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이다”(눅 15:38-30)

말도 안 되는 탕자를 위한 잔치. 누구를 위한 잔치냐는 것이다. 세상의 잔치는 그에 걸 맞는 자격 있는 자가 있어야 한다. 실력 있고, 명예롭고, 완벽하고, 거룩한 자격이 있는 마땅한 자가 받아야 된다는 말이다. 이것만 가지고 화를 내기에는 정당성이 잘 세워지지 않는지 그의 분노의 또 다른 이유가 드러난다. ‘나를 위해서는 언제 잔치를 벌여 줬습니까? 아버지를 배신했던 저런 자식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필요하지, 웬 잔치입니까? 나를 위해서는 조그만 잔치라도, 염소 새끼라도 잡아준 적 있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2018년 4월) <계속> [GN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복음기도동맹군 은혜 광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주님 따르기에 너무 부족해 보이지만 그래도 옷이라도 입고 싶어요!
작은 외마디라도 이 옷의 글귀처럼 살고 싶어요!

교회, 선교단체, 학교 등 단체 주문, 제작 소량부터 대량까지 주문받습니다. 최소한의 마진은 적용합니다. ^^

문의 및 상담 | 010-8766-9129



하나님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문화 예술 선교단



Blue Fish Company
Stage & Film

문화·예술의 부흥을 꿈꾸는 기도모임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수도권에서 모입니다.

블루피쉬는 병에 담겨 있을 때는 평범한 물고기입니다. 그러나 바닷물 속에서 햇빛을 받으면 본래의 파란 빛을 발합니다.

블루피쉬컴퍼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그 빛을 열방에 비추는 공동체입니다.

- 열방과 다음세대에게 드라마로 복음전파.
- 문화예술인들에게 복음전파.

문화·예술의 부흥을 꿈꾸며 기도할 분을 기다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엡 5:8)

문의 | 010-3272-6251

Interview <5면에 이어>


TGC는 복음을 지키기 위한 미디어사역

체인가요?

“TGC는 복음을 지키기 위한 미디어 사역을 하는 단체예요. 지금 핸드폰과 유튜브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 중 가짜 정보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진짜 정보를 내보내자는 것이죠. ‘복음’을 검색하면 이단들이 만든 영상이 먼저 올라와요. 그래서 검색어를 넣었을 때 우리의 영상이 올라오게 하려고 해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 이 시대 문명을 그대로 사용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글이나 영상을 제공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은 한 교회나 단체의 일이 아니라 연합해야 해요. 그렇게 신칼빈주의라고 할 수 있는 13개의 기본 신조에 동의한 교회와 단체들이 연합해서 운영해 가고 있어요. 거의 전 교단이 연합하고 있어요. 동의해야 하는 신조는 창조를 믿고, 예수님 구속과 성경 무오설 등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현재는 CTC코리아와 TGC코리아가 연합을 해서 하나가 되면서 법인을 만들었어요. 단체이름은 (사)복음과연합입니다.” [GNNEWS]

Y.K.

<뒷 이야기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gnpnews.org)에서 이어집니다.>



▲TGC코리아동역자들과 함께, 출처: TGC코리아 웹사이트

* 복음과 기도의 삶을 핵심가치로 삼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을 위해 은혜로 게재되는 광고 지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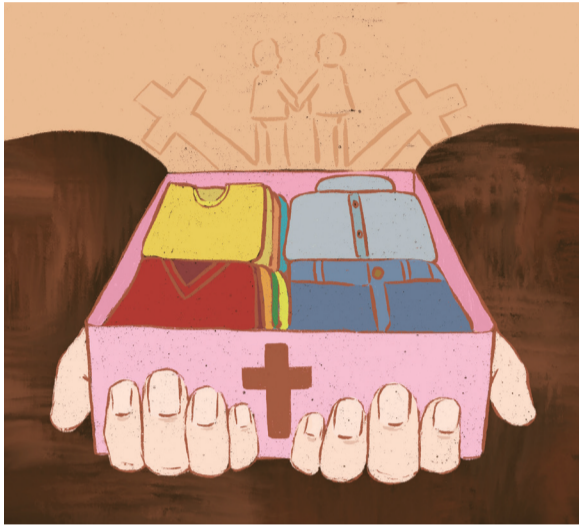


가게 정리하며 물건을 선교지로 보내

30년이란 시간을 남편과 함께 시장에서 장사를 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는 않을 만큼 유지돼 왔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어려워져 겨우 생계유지를 할 정도만 되고 있었다. 코로나가 온 이후부터는 더 쉽지 않아 생업이었던 장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6년 전, 주님은 내게 일을 그만둘 것을 말씀하셨고 사인도 여러 번 주셨다. 그런데 순종하지 못했다. 아직 믿음이 작은 남편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이었다. 작년엔 코로나가 오고 나서야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다. “사실 몇 년 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믿음이 없고 이 일을 너무 좋아하는 당신에게 차마 말을 못했다. 이번에 장사를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냐.”고. 처음에는 아무 소리 안하던 남편이 가게를 팔려고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가게를 팔아도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었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으면 손해는 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주님이 십일조라는 마음을 주셨다. 신기하게도 너무 감사했다. 그동안 남편은 십일조를 안 했다. 그래서 남편 몰래 십



일러스트=고은선

일조를 하기도 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지 못했다. 6년 전, 가게를 정리할 것에 대한 응답을 받은 후부터 물건들을 놓고 기도했다. 가게 정리할 때 분명히 옷들이 남을 텐데 ‘주님 이

물건들이 주님의 선교 사업,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다. 최근 청바지 공장 두 군데가 올 스톱하면서 남은 물건을 다 샀다. 물건이 들어

올 때마다 ‘하나님 선교 사업에 쓰이라고 하시거나.’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러나 남편이 동의를 해주어야 할 수 있기에 남편을 위해 기도하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헌물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 처음에

는 남편이 그럴 수 없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선교지로 보내자고 했다. 그러던 중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옷을 나눈다는 소식을 들었다. 연락해보니 이미 모집이 끝났다고 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다가 이전에 기도하러 갔던 한 선교단체가 생각나 연락을 했더니 기쁘게 받아 주신다고 했다. 보잘 것 없으나 사업을 접는 마지막에 주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나누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지... 오래 전부터 소원하며 기도했던 대로 선택하신 주님께서 신실하게 일해 주셨다. 남편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기쁘게 나누게 하셨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까지는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남은 삶은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 우리 부부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GPNEWS] 양정자



보화 같은 천국을 소유한 기쁨

한 사람이 울퉁불퉁 돌이 가득한 밭을 종일 일구고 있다. 돌만 나오는 밭에서 다시 곡괭이를 내려찍는데 ‘우지근’ 소리가 난다. 땅을 파보니 ‘보석 상자’가 묻혀있다. 흥분된 마음을 애써 달래며 상자를 다시 깊이 묻는다. 집으로 돌아가 전 재산을 정리한다. ‘누가 알면 안 돼. 빨리. 하루라도 늦으면 안 되는데...’ 그 밭을 강탈하듯 값을 치르고 난 그 날. 그가 느꼈을 그 기쁨. 천국을 소유한 기쁨은 이와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다. 이 기쁨을 맛보았는가?

[GPNEWS] 그림 이수진



北, 8차 당대회 통해 ‘고난의 행군’ 언급... 수백만 아사 경험 되풀이되나?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독자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의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고난의 행군’을 언급하면서 지금의 난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데일리NK가 최근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당의 말단조직 책임자가 1만 명 가까이 모인 당(黨) 세포비서 대회에서 “북한의 전진도 상에는 많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여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당 제8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은 순탄치 않다.”고 자평하면서 “나(김정은)는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시작하여 각급 당조직들, 전당의 세포비서들이 이전보다 더 어려운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

다.”고 밝혔다. ‘고난의 행군’은 1990년대 중반 북한에서 수십만 내지 수백만이 굶어죽는 시기로 알려져 있지만, 북한 역사에서 ‘고난의 행군’은 세 차례 정도 있었다. 김 총비서가 ‘고난의 행군’을 다시 꺼내든 것은 그 같은 정신으로 지금의 난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매체는 풀이했다. 이 매체는 이러한 의지 표명이 대외관계 개선에 연연하지 않고 자력갱생으로 버티겠다는 최근의 정책기조를 반영하고 있다면서, 미국과의 관계,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제재 해제나 경제지원에 연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 총비서는 사상통제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주문했다. 이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강조하면서 자라나는 청년세대

들의 교양에도 힘을 기울여 외부 문물의 침투로 사상이 이완되는 것을 막고, 청년들을 김정은의 결사옹위대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김 총비서는 “인간개조 사업을 적극 벌이며 집단 안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적 기풍이 차고 넘치게 해야 한다.”면서 “인간개조 운동이 힘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출처: 유튜브 채널 Pyongyang Broadcast Service 캡처

있게 벌어지던 천리마시대처럼 뒤떨어진 사람들을 사회주의적 근로자, 애국적인 근로자로 만드는 사업을 전

북한당국이 평양시 1만호 살림집 건설을 위해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야간돌격대를 조직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진 여성들까지 야간작업을 시키고 있다고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북한에는 살림집이 부족해 평양시 주민들은 부모님의 집이나 형제, 자매의 집에서 정원을 초과해 여러 명이 좁은 집에서 일명 ‘동거살이’를 하는 가정들이 많다. 이에 평양시 살림집 1만호 건설 착공식에 참석한 김정은이 올해 안에 살림집 1만호를 건설하기 위해 총돌격전을 전개하라고 지시했다. 건설에 투입된 군인들과 돌격대원들로

인력이 부족하자 가두여성(전업주부)들로 야간돌격대를 조직해 공사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소식통은 “야간돌격대의 노동시간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로 정해졌고 여성들은 들것으로 흙을 퍼 나르는 등 과도한 야간노동에 혹사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요즘 평양에서는 각 구역 인민반별로 1만호 건설 돌격대를 지원하는 식사당번제가 시행되고 있다.”면서 “최고 존엄이 8차 당대회에서 2025년까지 평양에 5만 세대를 건설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올해 당면과제로 지정되면서 당국이 인민반 여성들까지 들볶고

당적으로 조직,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GP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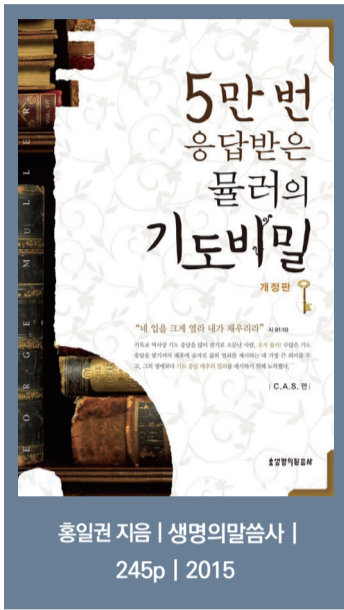
있다.”고 전했다. 주말도 없이 일하는 돌격대의 식사는 하루 세끼 나라에서 보장하지만 그중 점심은 매일 평양 구역별 인민반들이 돌아가면서 부담하고 있어 이를 통해 돌격대의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려는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코로나 비상시국에 생계를 이어가는 것도 버거운 주민들에게 돌격대의 식사까지 책임지라며 살림집 1만호 건설을 몰아붙이는 당국의 무책임한 방침에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평양 시민들은 1만호 살림집 건설이 수도 시민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해주기 보다는 김정은의 치적 쌓기에 불과하다고 여긴다. [GPNEWS]

살림집 건설에 가정주부 동원, 평양 주민들 불만

뷰즈 인 북스 Views in Books

홍일권 <5만 번 응답받은 물러의 기도비밀>

“저를 통해 회심한 사람이 모두 저의 기념비입니다”



은밀한 기도의 소중함을 모르지는 않았다. 그러다 문득 은밀한 중에 주님을 만나고 싶은 소망이 부여됐다. 단순히, 그 이유 하나로 기도의 무릎을 꿇었다. 그즈음,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다. '5만 번 응답받은 물러의 기도비밀'이었다. 10대까지 방황하다가 회심 후 세웠

던 고아원의 수천 고아들을 오직 기도로 먹였던 그 삶의 비밀을 가슴에 담고 싶었다. 그렇게 끝까지 기도의 열정을 놓치지 않고 싶었다. 그 삶의 비밀은 한마디로 '하나님 신뢰함'이었다. 사람들이 "왜 내게는 조지 물러 같은 믿음이 없을까?"라고 자문하지만, "조지 물러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A.W.토저도 그것을 강조했다.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매일 세끼씩 먹여야 하는 부담이 얼마나 컸을지! 그러나 그 엄청난 부담보다 물러의 믿음이 더 컸다는 사실을 마주하며 주먹을 불끈 쥐게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돌덩이 같은 확실한 신뢰! 그것이면 충분하겠

다. 그의 인생 후반 일기에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 얻는 기쁨은 형용할 수 없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50년간의 사역의 역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산 증거이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그분의 은총으로 진행됐다.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신실하신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걸어왔다. 그리고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기 때문임을 점점 더 확신한다. 나 홀로 버려진다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행한 너무도 긴 체험을 값지게 소유한 이후에조차도 여전히 그분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길을 포기하려는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내가 반세기 이상 동안 포기하기를 바란 적이 결코 없었다는 점이다.' '1시간 기도한 후에 4시간 일하는 것이 기도 없이 5시간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며 쉽 없이 일하는 중에도, 피곤한 때에도 정해진 기도 시간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사람. 기도의 특권을 매일 사용했던 사람. 매일 주님

을 찾으며, 모든 문제를 주님과 상의하면서 많은 응답의 열매를 매일매일 공급받았던 사람. 그의 삶은 풍성한 양식뿐만 아니라, 믿음, 사랑, 평화, 기쁨, 감사 등으로 채워졌는데, 이 모든 것은 그의 온전한 신뢰의 결과로 나타난 모습이었으리라.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것일까. 그가 죽기 전에 많은 고아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였던 물러에 대한 기념비를 크고 아름답게 세워 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했던 그의 말이 경이롭다. "제 기념비는 필요 없습니다. 저를 통해 회심한 모든 신자들이 다 저의 영원한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기념비를 주셨습니다. 영광을 받을 대상은 부끄러운 인간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이 돌아 가야 합니다!"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고아에서 아들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임을 나 또한 고백한다. "1시간 기도한 후에 4시간 일하는 것이 기도 없이 5시간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나의 갈 길을 다 아시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이 길, 그분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의 끝에 주님을 대면하게 될 그 날을 꿈꾸며, 행복한 기도의 행진 멈추지 않으리라! [GPNEWS] 양동원 선교사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서울대, 자유민주주의 이념 추구하는 '새학생회' 결성

그동안 좌편향 된 대학가를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공동체로 변화시키겠다는 본격적인 시도가 서울대에서 시작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사회주의를 조장하는 기존 학생회에 반대에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새학생회'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학생 조직을 구성했다. 이들은 지난 8일 트루스포럼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명서를 통해 "복수 노조가 허용되듯 서울대 학생들을 대표하는 학생회도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며 "그들(기존 총학생회)이 결정한 내용이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취급되는 것은 침묵하는 대다수 학생들의 사상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새학생회는 성명서를 통해 기존 서울대 총학생회의 공식 명칭인 '민중해방의 불꽃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민주화를 빙자해 마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에 기반을 둔 80년대 운동권의 역사를 반영하는 이름"이라며 이에 대해 대다수 학생들은 이러한 학생회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중해방의 불꽃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극히 편향된 견해를 가진 일부 학생들, 그리고 그들과 연결

된 운동권 선배조직에 사실상 장악되어 있다."며 "서울대 총학생회가 서울대 학생들의 총의를 대변하는 것처럼 대우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특히 새학생회에 따르면 서울대 총학생회 회칙 제3조 제1항은 '본회의 회원은 본교 학사과정 재적 중인 자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새학생회는 "이에 따라 모든 서울대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민중해방의 불꽃 서울대 총학생회'에 가입된 것으로 간주된다."면서 "이는 다른 생각을 가진 학생들의 사상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새학생회는 "편향된 총학생회가 서울대 본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근거하여 사실상 권력기구로서 생각이 다른 학생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학생사회의 구태이자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한 '민중해방의 불꽃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87년 제정된 서울대 총학생회 회칙과 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들은 기성 정치권과 연결된 운동권 학생들이 학생사회를 장악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며 "이제는 87체제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학생회를 시작

할 때"라고 했다. 한편, 현재 서울대 총학생회는 대학본부가 위임 또는 허용한 권한을 바탕으로 학생회관 건물의 일부를 점유·관리하며 자신들의 입장과 다른 트루스포럼과 같은 단체의 동아리 소개책자 등재 거부 등 학생들의 표현과 활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학생회는 서울대 선배들이 장학금을 대학에 기탁할 경우, '기존 서울대 총학생회 탈퇴를 조건으로 제시할 것을 권고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방침을 제시하기도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이탈리아의 공산주의 이론가 안토니오 그람시는 자본주의를 전복시키려면 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이념적 해게모니(주도권)를 국가에서 탈취

하고 이를 위해 교육, 언론, 학계, 예술, 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 진출을 구축해야 대항 이데올로기를 전파한다는 이른바 진지론을 주장했다. 이러한 사회권력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온 기관은 대학사회다. 그런 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서울대 총학생회를 비롯, 대학가의 학생회는 오랫동안 좌파 사상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행동전위대로서 활동해왔다. 이러한 한국사회에서 서울대 좌파 사상의 핵심지인 총학생회를 견제할 '새학생회'가 발족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서울대 등 대학사회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데올로기 중심의 학교 문화가 진리로 회복되도록 기도하자. [GPNEWS]



▲ 서울대학교 전경. 출처: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1. 4. 1 ~ 4. 13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권순효 김사회 김선례 김신애 김유남 김정희 김지영 노은옥 박성규 박신희 배선희 신현경 안민자 안수경 오세주 은종숙 이삼연 이영옥 이종훈 이준진 이진희 장 진 조형광 최근희 최점옥 최정숙 하은숙 한홍자 무명 교회 및 단체: 고현교회 모리아선교회 문광교회 반석중앙교회 복음기도신학연구소 산곡교회 샘물교회 선한목자교회 양덕원감리교회 오이코노모스미 오에그교회 토론토한인침례교회 하원교회 렘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